

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

제1차 한국경제포럼 정책 세미나 : 혁신성장과 금융의 역할

「혁신성장을 위한 IP금융의 발전방안」

2018.09.07

이젼마(경희대학교)

Contents

1. 기술혁신과 IP의 관계
2. 국내 IP금융의 종류 및 현황
3. 혁신성장을 위한
금융정책방향
4. IP금융의 발전 역할



1. 기술혁신과 IP의 관계

◆ **IP(Intellectual Property)**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·발견된 무형의 소산로물로,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**지식재산권(Intellectual Property Rights)**이라 함

- 지재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
 - ❖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되어 있으며, 저작권은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
 - ❖ 이 밖에도 첨단산업 재산권(반도체설계, 생명공학기술), 산업저작권(컴퓨터프로그램, 소프트웨어), 정보재산권(데이터베이스, 영업비밀, 뉴미디어), 기타(프랜차이징, 지리적표시, 캐릭터, 인터넷도메인)이 '신지식 재산권'으로 분류되고 있음

◆ 기술혁신과 IP의 관계

- 기술혁신이라는 용어는 **슘페터**에 의하여 처음 소개
 - ❖ 슘페터는 '기업가 정신'과 '혁신'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경영학에 도입한 혁신의 아버지로서 이미 1942년 기업가 정신에 바탕을 둔 '**창조적 파괴(Creative Destruction)**'가 **경제 발전의 원동력**임을 주창
- 기술혁신을 주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 선점기간 연장 및 확보를 위해서는 **특허 확보**가 병행되어야 함
- 최근에는 특허가 **혁신의 산출물**로 통용되고 있으며, R&D의 종속적인 부산물이 아니라 R&D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

2. 국내 IP금융의 종류와 현황

◆ IP금융이란 지식재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금융활동을 일컫음

종류	현황
기술금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력 있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TCB(Technology Credit Bureau)평가에 근거하여 대출·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 '14.7월 시작한 이래 '18.7기준 기술신용대출은 151.5조의 누적잔액(34.4만건)을 기록하는 등 급속한 성장 인프라 면에서도 급속한 성장(TCB 평가사, 기술인력 등) '무늬만 기술금융' 등 부정적 평가가 있기도 하나, 신용에만 의존한 평가 방식을 탈피하여 기술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
IP담보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'동산금융활성화' 정책의 일환으로 IP담보대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음
IP-based VC 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VC 투자는 혁신자본 공급의 주요 민간 주체로 여겨짐(세계혁신지수(GII)는 '벤처 자본 거래량(Venture capital deals)'을 혁신지수구성요소로 고려) 최근 VC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IP관련 부문 VC투자는 많지 않음
기술특례상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수익성이 낮아 상장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한 제도로, 대상기업은 일반·벤처기업 대비 일부 외형요건이 면제 또는 완화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등급 이상(복수기관 평가결과 A등급 & BBB등급 이상)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자격 부여 2005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9개사가 기술특례를 통해 Kosdaq 상장
IP 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재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IP펀드가 다수 조성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타 펀드에 비해 매우 작음 특히 국내에는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NPE(Non Practicing Entity)가 부재 NPE는 특허괴물(Patent Ttoll)이라 불리는 등 부정적 인식이 있으나, 최근에는 NPE 전략 다양화로 NPE의 순기능 및 IP 포트폴리오 전략을 실현하는데 긍정적 역할이 부각

3.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정책 방향

- ◆ 금융위는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여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‘생산적 금융’이라하고, **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금융정책방향**으로 설정

정책 방향	내용
금융권 일자리 창출	• 금융권 진입규제를 개편 하여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고, 신규참가자 확대로 금융권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
자본시장 혁신	•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, 일자리 창출, 국민소득 증대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의 성장자금 중개기능 강화, 장외 중간회수시장 정비, 사모펀드·투자은행 등 다양한 성장자본 공급주체 육성 등
생산적 분야로 자금 유인	• 시중 부동산자금을 가계·부동산이 아닌 혁신·중소기업 및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인 자본규제 등 개편
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	• 4차 산업혁명 분야, 혁신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 강화 를 위한 정책금융 자금지원 강화 • 신규 벤처투자 지원규모 확대, 재정과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민간 투자자금 유치 확대
정책금융기관 기능 조정	• 정책금융과 재정자금간 중복지원 제거 및 기능 조정 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 제고
창업지원 강화	•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·자금지원 , 재기 지원자들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 , 현 기술금융 체계를 개편 하여, 기술·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마련
IP금융 활성화	• 기술금융, IP담보대출 활성화 ,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NPE 설립 추진

4. IP금융 발전 방안

1. IP투자 확대를 통한 IP금융 선순환 구조 확립

- 국내 IP금융 현황을 보면 기술금융에 의한 '대출'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, IP금융 관련 정책 역시 기술금융 및 IP담보대출에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룸
 -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'투자' 형태의 모험자본이 IP금융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이를 위해 IP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
 - ❖ 현재 VC투자 자금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나, IP관련 투자는 미비
 - ❖ IP투자의 경우 IP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, 평가 인력부족 및 평가금액으로 이 커 펀드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평가비용 상쇄 및 리스크 다변화 투자 전략을 실행하기 어려움
- 재정·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IP투자 규모 확대 방안 필요

4. IP금융 발전 방안

1. IP투자 확대를 통한 IP금융 선순환 구조 확립



2. IP금융을 이용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

- 혁신 중소기업들이 VC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후 자금 회수 후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받아 지속적인 혁신성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①**자본시장을 통한 출구활성화**와 함께 ②**코스닥시장의 경쟁력 강화**가 선행되어야 함
- 코스닥시장 출구 활성화 정책이 꾸준히 실시되는데 반해,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정책은 미비
- 코스닥 시장이 단순한 **중소형시장**이라는 인식을 넘어, 인위적인 정책적 지원 없이도 **코스닥 대표 기업들의 주도** 하에 **중소형 기술주에게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파급**될 수 있는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
 - ❖ 현 코스닥 시장 하에서는 대표기업들의 **이전상장** 유인을 해소할만한 인센티브 부재
- **IP가치평가에 의한 코스닥 대표 기술지수 산출**을 통해 코스닥의 '**기술주 시장**' 정체성을 확립·강화 방안
 - ❖ 현재 코스닥 내에는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을 대표할 만한 대표지수가 부재
 - ❖ 특허가치평가에 의한 코스닥을 대표하는 ①**우량기술지수** 산출방안(예: Kostech150),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②**성장기술지수**(예: Kosmtech200) 산출방안 고려 필요
 - ❖ 이러한 기술지수에 투자 시 **다양한 인센티브 부여** 방안 필요

4. IP금융 발전 방안

2. IP에 근거한 기술주 투자 전략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

코스닥 기업 시가총액 그룹별 특허보유 현황 (2016년 12월 기준, 단위:개)

		평균	표준편차	제25 백분위수	제50 백분위수	제75 백분위수	최솟값	최댓값
전체		27.4	60.2	0	8	28	0	728
시가총액 Rank (1: 상위 10%, 10, 하위 10%)	1	66.6	123.1	3	18	66	0	665
	2	37.1	69.5	1	10.5	30	0	366
	3	29.7	44.3	0	12	44	0	253
	4	29.2	71.2	0	9.5	37	0	728
	5	27.9	48.7	0	8	35	0	309
	6	27.1	49.5	1	10	29	0	315
	7	17.0	27.7	0	6.5	25	0	180
	8	15.6	25.1	0	7	23	0	200
	9	15.3	19.4	1	9.5	19	0	103
	10	9.0	23.2	0	0	8	0	157

감사합니다!